

서울적십자병원, 의료취약층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

✎ 정희석 기자 | ⓒ 승인 2024.07.02 18:05



[라포르시안] 서울적십자병원(원장 채동완)은 2024년 의료취약층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.

해당 사업은 만성질환자·장애인·미혼모자시설 입소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의료취약층의 질병 예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지역 사회로부터 꾸준히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.

서울적십자병원은 지난 6월부터 서북권 6개소 보건소 및 한부모시설로부터 대상자를 의뢰받아 비용 부담이 큰 ▲대상포진 ▲폐렴구균 ▲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.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90% 이상의 가장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는 싱그릭스 백신을 2차까지 지원해 질병 예방에 힘쓰고 있

다.

채동완 병원장은 “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자 서북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써 앞으로도 의료취약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와 질병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”고 전했다.



정희석 기자 leehan28@rapportian.com

저작권자 ©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